

## 이름 짓기 문형과 혼인 문형

-성경 히브리어의 양적 구조 분석으로 발견한 고정된 형식들-

주원준\*

### 1. 들어가며

성경 히브리어는 일상어가 아닌 사어(死語)이다. 의미 있는 언중(言衆)이 더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직 쓰인 책만 남아 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성경 히브리어 연구에 쓰인 언어의 ‘형식적 특징’을 찾아내고 ‘그 특징을 해석’하는 방법론이 사용된다.

넓게 보자면 텍스트 연구 중심의 전통적인 성경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 방법론을 사용한다. 쓰여져 전하는 말씀이 계시의 가장 완전한 언어이기에 “성경의 언어가 표현하는 미세한 부분까지”<sup>1)</sup> 놓치지 않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미드라쉬 전통도 결국 이런 방법론을 사용한 것이다. 특정한 신명이나 반복되는 표현에 주목하고, 그런 특정한 낱말이나 구절의 신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구약성경의 원천을 규명했던 근대적 성경해석 방법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의미 있는 언중이 존재하지 않고, 비교 가능한 동시대의 문헌도 (양적, 질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성경 언어를 전문적으로

---

\* 한남성서연구소 수석 연구원, 구약학

1) 스탬베르거 지음, 『미드라쉬 입문-라베들은 성경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개론, 선택 본문과 해석』, 이수민 역 (서울: 바오로 딸, 2008), 15. 고대의 성경 해석 방법론들(같은 책 19-31쪽)도 결국 쓰여진 언어에 대한 세심한 관찰 결과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통한다.

탐구하는 히브리어학(Hebraistik 또는 Biblical Hebrew Studies)은 더더욱 텍스트의 다양한 차원에 걸쳐 형식적 특징을 규명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낱말이나 구절이나 문장이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규명할 근거를 확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론으로 새로운 형식적 특징을 제시하고 그 신학적 의미를 규명하려는 필자의 연구에 바탕하고 있다.<sup>2)</sup> 새로운 형식적 틀을 정립하여 관찰하는 가운데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두 개의 문형을 최초로 보고하게 되었다.

## 2. 양적 구조 분석 방법론

### 2.1. 리히터의 방법론

필자가 새로 제시한 이른바 ‘양적 구조 분석’(Quantitative-structural Analysis) 방법론은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sup>3)</sup> 여기서는 논의의 전개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간략히 제시하겠다. 성서 본문과 성서 언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문법, 분석틀, 본문, 분석의 예 등)를 제공하는 일은 히브리어학 또는 성서 언어학(Biblical Linguistics)의 중요한 과제

---

2) 필자는 학위 논문에서 이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Joo, “Decrescendo in Crescendo—the Quantitative-Structural Analysis of the Verbal Clause in the Biblical Hebrew,” ATS 87 (St. Otilien: EOS, 2009). 본 논문은 위 책 3.3.5장의 내용을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2010년 8월 1일-6일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제20회 국제 구약 성서 학회(IOSOT: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에서 채택되어(short paper 부문)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3) 이 새로운 방법론을 우리말로 새로 요약한 것으로는 주원준, “히브리어 동사문의 양적 구조 분석 방법론 개괄,” 「신학과 철학」 13 (2010)을 보라. 필자는 이 논문에서 문장 차원의 간략한 연구사를 다루며 리히터 학파의 이론도 조금 자세히 실었다.

가운데 하나다. 리히터는<sup>4)</sup> 전통적인 히브리어학의 성과를 따르면서도, 더 나은 이론적 틀로서 이런 과제를 충족시키려 했다. 우선 그는 성경 히브리어 관련 연구에서 다음의 <표 1>이 제시하는 언어학적 ‘차원’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실태를 비판하고, 이 차원을 분명히 구분하는 게 연구의 전제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5)</sup>

또한 그는 문장 차원의 분석을 위해 다음의 <표 2>처럼 히브리어의 고유한 문장 구성소(Sy: Syntagma)를 정의했다. 그는 이 새로운 분석 체계로 히브리어의 고유한 특질을 잘 살릴 수 있으리라 보았다.<sup>6)</sup> 리히터와 그의 제자들은 이런 시도들을 직접 히브리어 텍스트(BHS)에 적용

- 
- 4) Disse, *Informationsstruktur im biblischen Hebräisch: Sprachwissenschaftliche Grundlagen und exegetische Konsequenzen einer Korpusuntersuchung zu den Büchern Deuteronomium, Richter und 2 Könige*, ATS 56 (1998), 14-23은 구조주의적 언어학(structural linguistics)에 기반한 리히터 이론의 특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차원 이론(Ebenenmodell), 둘째는 통시성보다 공시성에 우선을 두기(Synchronie vor Diachronie), 셋째는 언어 형식에 중점을 두기(Vorrang der Form.). 리히터가 성서 히브리어학 연구에서 차지하는 연구사적 위치는 다음을 보라. Van der Merwe, “A Short Survey of Major Contributions to the Grammatical Description of Old Hebrew since 1800 AD,” *JNSL* 13 (1987) 171-174.
- 5) 현재 우리말로 출판된 히브리어 문법서는 꼭 다양하지만, ‘단어 묶음 차원’까지 다루고 있는 학습용 교재가 대부분이다. 방석중, “히브리어 구문론 연구,” 『신학과 세계』 26 (1993), 44는 이렇게 대부분의 히브리어 문법서가 ‘구문론’(Syntax)을 아예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법서의 이런 한계는 문법서가 어떤 항목을 다루며 끝나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 ‘약동사나 불규칙 동사의 형태’나 이른바 ‘와우 연속법’의 열개 정도를 다루며 책을 맺는다. 영어나 독일어로 된 (독학용 또는 수업용) ‘교재’에서도 이런 현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우리말로 된 문법서 가운데 ‘문장 차원’을 다룬 것은 다음 책이 있다. 방석중, 『히브리어 문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이 책은 제3부(309-320쪽)에서 12개의 히브리어 문장 구조를 제시한다. 문장론을 다룬 단행본도 있다. 이기락, 『성서히브리어 문장론』 (서울: 가톨릭대 출판부, 1999). 두 책 모두 아쉽게도 ‘어순’(word order) 연구를 다루지 않는다. 참고로 본 논문은 주로 ‘문장 차원’과 ‘텍스트 차원’에 걸쳐 있다.
- 6) Rechenmacher and Van der Merwe, “The Contribution of Wolfgang Richter to current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biblical Hebrew,” *JSS* L/1 (2005), 71. 이 분석 체계에 대한 비판과 그 반대 비판은 같은 책 77-80을 보라.

<표 1> 리히터의 ‘차원’ 관련 용어

우리말	독일어	영어	전통적 용어
단어 차원	WE: Wortebene	word level	morphology
단어 묶음 차원	WfE: Wortfügungsebene:	word group level	morpho-syntax, 또는 syntax
문장 차원	SE: Satzebene	clausal level	syntax
텍스트 차원	TE: Textebene (또는 fE: Satzfügungsebene	textual level	-

<표 2> 리히터의 문장 구성소 유형과 정의

P = 술어 predicate	1.Sy = 주어
2.Sy = 직접 목적어	3.Sy = 간접 목적어
4.Sy = 전치사 목적어	5.Sy = 장소
6.Sy = 방향	7.Sy = 전치사구
8.Sy = 유리/불리	9.Sy = 범위/영역
10.Sy = 비교	11.Sy = 수동태의 주어
C = 부가어 circumstantial	

해서 새로운 성경 본문을 만들었는데, 이른바 BHt(Biblia Hebraica transcripta)이다.<sup>7)</sup> 현재 버전 5를 완성 중인 이 히브리어 성서본은 위 네 차원 모두에서 히브리어의 고유한 특질을 드러내는 다양한 시도를 담고 있다. 특히 문장 차원에서 BHt는 언어학적으로 모든 주 문장/종속 문을 일관되게 규정하려고 했다. 이 새로운 체계를 아래 <예문 1>을 들어 설명해 보겠다.

<예문 1>을 문장 차원으로 분석하면 4개의 문장 구성소가 ‘P-8.Sy-1.Sy-C’ 순서로 들어 있다. 맨 뒤의 부가어부터 보자. ‘부가어’(C: circumstantial)는 문장 구성소의 하나인데, 동사문의 중심인 ‘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아니므로 이런 이름이 붙었다. 곧, 부가어는 ‘문장의 뼈대’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생략되거나 덧붙을

7) 현재 다섯 번째 수정본(BHt5)이 디지털 형태로 작업 중이다.

<예문 1>

여호 24,16c.c.I.cII.		מַעֲבֹד אֶת־יְהוָה	לָנוּ	הַלֵּילָהּ
	לְעִבְדוֹ אֱלֹהִים אֲחֵרִים			
문장 구성소	C-finis	1. Sy	8. Sy	P
	목적 부가어	주어	분리	술어
크기(단어의 수)	4	4	2	1
종속문의 경계	cII	cI		c
의미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주님을 버리는 것’	‘우리 에게’	‘헛된 것입니다’

수 있다. 이 문장을 맺는 부가어의 성격은 ‘목적 부가어’(C-finis)이다. 반면 ‘Sy’(필수 문장 구성소)는 술어가 꼭 요구하는 것인데, 술어로 사용 되는 동사마다 요구하는 ‘Sy’의 종류나 숫자는 다르다.

이 문장은 술어(P)로 시작하여 필수 문장 구성소 두 개가 따른다. ‘주어’(1.Sy)와 ‘불리함’을 표현하는 8.Sy이다. ‘우리에게’를 뜻하는 ‘라 누’(לָנוּ)를 3.Sy, 곧 간접 목적어가 아닌, 8.Sy로 분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HALOT에 따르면 이 문장의 술어인 ‘할릴’(הֵלֵל)은 ‘할랄’(הִלַּל)의 기본형(G형: Qal형)의 수동 분사형이다. ‘הֵלֵל-I’는 ‘더럽히다, 속되게 하다’의 뜻이므로, 수동 분사형은 ‘헛된, 속된, 쓸모없는’을 뜻한다. 이 수동 분사형 뒤에 대개 ‘르’(ל)가 따라오는데, 그 뜻은 ‘...에겐 세속된/헛된/쓸데없는’이다. 곧 이 전치사로 인해 누구에게 헛되고 쓸모없는 일인지 밝혀진다.

이 ‘르’(ל)를 인도 유럽어로는 대개 3격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라틴어 dare(‘주다’)에서 기원한 3격(dative)은 대개 간접 목적어를 형성 하는데, 기본 의미는 ‘수여’이다. 히브리어 전치사 ‘르’(ל) 또한 수여의 의미로 간접 목적어(3.Sy)를 형성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르’(ל)는 ‘수여’의 의미가 아니다.

누구에게 헛되고 쓸모없는 일인지를 밝히는, 곧 불리함(또는 유리 함)을 표현하는 ‘르’(ל, 이른바 ‘lamed-advantage’)로 이해해야 히브리어

의 문자적 뜻에 일치한다.

그 다음에는 종속문의 경계를 보자. 여호수아기 24장 16절의 세 번째 문장(c)인 이 문장은 종속문 두 개를 갖고 있다. 첫째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부정사문(I: infinitive clause)으로 ‘주님을 버리는 일’이란 뜻이다. 이 부정사문을 24,16c1로 표기했는데, 24장 16절의 셋째 문장(c)에 속한 부정사문(I)이란 뜻이다. 또 하나의 부정사문은 바로 뒤에서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를 뜻하며 ‘목적 부가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두 번째 부정사문이 첫째 부정사문에 속한다는 게 BHt의 판단이다. 그래서 둘째 부정사문을 cII로, 곧 cI에 속한 부정사문(I)로 표기한 것이다. 만일 이 두 부정사문이 병렬 관계라면, cI1-cI2로 표기했을 것이다.<sup>8)</sup>

히브리어 원문의 이 까다로운 술어와 문장 구성소를 독일어와 영어 번역본은 아래와 같이 옮겼다. 두 번역 모두 술어를 ‘...우리에게서 멀다/아득하다’로 옮겼다. 이는 이 술어를 “absum”(‘없다, 떨어져 있다’)로 옮긴 대중 라틴어 역(Vulgata)의 영향으로 보인다.<sup>9)</sup> 이 두 번역의 차이라면, NRSV는 ‘목적 부가어’가 부정사절이고(to serve...) 이 바로 앞의 문장 구성소에 속하는 면(...forsake ...to serve)까지, 곧 형식적 요소까지 그대로 살려서 옮겼지만, 엘버펠더(Elberfelder)는 두 종속문의 종속 관계를 잘 표현하진 못하였다. 만일 “...verlassen, um ... zu dienen”으로 옮겼다면 히브리어 본문의 언어 형식적 면까지 일치했을 것이다. 또한 두 번역 모두 8.Sy의 불리함(또는 불이익)의 뜻이 잘 살았다고는 볼

8) 이 예에서 알 수 있듯, 이 분석틀도 연구자의 이해와 평가에 따라 실제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cI1과 cI2로 분석한다면, 술어인 ‘할랄’(לל)동사가 두 개의 목적어를 지닌다고 해석해야만 할 것이다(물론 이 동사는 뒤에서 설명할 ‘이중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 또한 만일 ‘라누’(לנ)를 ‘할랄’(לל) 동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구성소가 아니라, 부가어의 일종으로 본다면 ‘C-adv.’(유리함의 부가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부가어로 평가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판단과 수정이 BHt의 다섯 번째 버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활발히 토론 중이다.

9) 아래에서 보듯, 이는 LXX의 영향이다.

수 없는데, 영어나 독일어가 셈어와 꽤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비롯된 한계로 보인다.

Elberfelder: Das sei ferne von uns, dass wir den  
Herrn verlassen und anderen Göttern dienen!

NRSV: Far be it from us that we should forsake  
the Lord to serve other gods

한편 우리말 번역을 보자. 아래에서 보듯, 『성경』은 ‘목적 부가어’(~섬기려고)와 ‘주어’(~저버리는 일)의 뜻은 살렸고, 두 부정사문의 종속 관계(cI-cII: ‘~섬기려고 ~저버리는 일’)도 원문과 같지만, 술어의 뜻은 칠십인역(μή γένοιτο)에 따른 것 같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의 술어가 주는 느낌과는 차이가 있다. 『표준』은 술어를 의역했는데(‘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 원문의 8.Sy는 우리말의 주어로, ‘목적 부가어’는 우리말로 목적어가 되었다. 두 부정사문의 종속 관계는 역전되었다(‘~저버리고 ~섬기는 일’). 두 번역 모두 8.Sy의 뜻은 잘 살리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말은 셈어와 꽤 멀고, 그리스도교 전래와 성경 번역의 역사도 비교적 짧기 때문이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성경 (가톨릭)]  
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표준)

<예문 1>의 번역 과정에서 보듯, 히브리어 원문을 옮기면서 언어의 형식적·내용적 측면이 변형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때때로 이런 변형 과정은 히브리어 자체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히브리어 원문과 현대 본문의 형식과 의미를 엄밀히 비교하면, 이미 상당히

변형된 형식과 의미가 고정되었고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권을 넘나들면서 진행되는 성경의 전승 과정은 이런 변형을 자연스레 포함하게 된다.

그런데 리히터는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해야 할 언어학적 수업과 연구 과정에서 ‘이미 고정된 변형’이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머릿속에 너무 확고하게 자리 잡아, ‘원문’의 연구에 영향을 주는 일을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의 원래 문자적 뜻에 가장 가까운 분석들을 고안한 것이다. 각 문장 구성소를 1.Sy, 2.Sy ~식으로 숫자로 표현한 이유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등 대부분의 문법 용어들이 인도 유럽어 문법에서 유래하여, 기존의 이 용어 자체가 ‘혼동’과 ‘편향’을 강화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리히터는 성서 주석학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본문의 내적·외적 한계를 정하는 문학비평 이전 단계에서, 곧 본문비평을 완성하고 난 다음, 이런 언어 형식적 분석을 필수적으로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히브리어 원문의 네 차원에 걸친 모든 형식적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문장의 경계와 문학적 단위를 근거 있게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다음에야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비평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10)</sup>

필자 또한 이런 정밀한 분석 위에서 문학비평의 결과가 더욱 성공적이라 확신한다. 덧붙여서, 히브리어 원문과 우리말 번역본의 이런 구조적 비교 연구가 두 언어 간의 관계를 심화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성서 주석학 학위 논문에서, 히브리어 ‘원문’의 ‘문자적 형식과 의미에 최대한 가까운 직역’과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말 역’의 두 역본을 시도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또한 히브리어 원문의 ‘가능한 최대한

10) ATS(Arbeiten zu Text und Sprache im Alten Testament) 시리즈로 발행되는 리히터 학과의 연구 성과물들은 실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해서 성경의 본문을 분석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이런 리히터의 분석들을 사용해서 본문의 형식적인 면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여러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문자적인 직역본'을 시도하는 것도 우리나라 성서학계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 2.2. 양적 구조 분석

일반 언어학에서 널리 알려진 규칙으로 ‘문장 성분의 증진 법칙’(Gesetz der wachsenden Glieder; PIC: Principle the Increasing Parts)이 있다. 짧은 문장 구성소를 가능한 빨리 말하고, 긴 문장 구성소를 나중에 말하는 게 듣는 이의 이해에 꼭 유리하다는 것이다. 아래 b형의 문장에 선 11번째 단어가 발설될 때 문장 구성소의 존재가(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주어, 술어) 모두 인지되지만, a형의 문장은 4번째 단어에서 이미 그 구조를 인지할 수 있어 ‘이해의 속도’(rapidity of comprehension)에 훨씬 유리하다.<sup>11)</sup>

a. I<sub>1</sub> VP[<sub>2</sub>introduced PP[<sub>3</sub>to Mary] NP[<sub>4</sub>some friends that John had brought  
to the party]].

b. I<sub>1</sub> VP[<sub>2</sub>introduced NP[<sub>3</sub>some friends that John had brought to the  
party] PP[<sub>4</sub>to Mary]].  
10 11

더 간단히 도식적으로 제시하면, 인간의 언어는 자연스레 다음 a형을 선호하게 된다는 주장이다.<sup>12)</sup>

11) Hawkins, “A Parsing Theory of Word Order Universals,” *LI* 21/2 (1990), 233. 참고로 모국어 구사자는 이 규칙을 자연스레 지킨다. 필자는 유학 시절, 약간의 문법 규칙을 어기더라도 위 a형의 문장을 구사하면 의사소통이 훨씬 매끄러워지는 것을 체험하였다. 짧은 문장 구성소들부터 빨리 말하면 된다.

12) Dik, *The Theory of Functional Grammar, Part I: The Structure of the Clause*, Functional

- a. preferred : [-] [--] [---] [----] [-----]
- b. non-preferred : [-----] [----] [---] [--] [-]

필자는 위 a형의 문장을 무표적(unmarked) 문장으로, b형을 유표적(marked) 문장으로 보고, 무표적 구조의 문장을 ‘크레센도’(Crescendo: 점점 크게)로, 위 b형의 유표적인 문장을 ‘데크레센도’(Decrescendo: 점점 작게)로 부르겠다. 문장의 맨 첫자리를 차지하는 문장 구성소가 2개 이상의 단어를 차지하거나 문장의 맨 끝이 매우 짧은 문장 구성소로 끝날 때 ‘부분적(partial) 데크레센도’가, 문장의 앞뒤에서 모두 일어날 때 ‘전체적(total) 데크레센도’ 구조가 발생한다. 성서 언어학 개념을 음악 기호를 빌려 설명하는 이유는 언어학 개념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되어, 신학자, 사목자, 평신도까지 성경 언어학적 토론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히브리어 산문의 동사문에서 크레센도 문장은 통계학적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대개 7할 이상의 문장이 크레센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데크레센도 문장은 언제 발생하는가? 혹시 이렇게 드문 유표적 문장이 내용적으로 또는 문맥에 따라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권까지 모든 동사문의 양적 구조를 검토하며 필자는 놀랍게도 다음의 두 가지 문형(formula)을 발견하여 보고하게 되었다.

이 문형은 문장의 양적 구조를 고려할 때, 예외를 매우 적게 허용하거나(이름 짓기 문형),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혼인 문형). 곧 ‘문형’이라는 표현은 형식적 고정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 3. 이중 목적어 구문

이 두 문형은 전통 문법에서 ‘이중 목적어 구문’(double object

construction)으로 다루던 것이다.<sup>13)</sup>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문장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이런 문장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

- 1) A를 B에게 주다/말하다...  
: B는 흔히 ‘사람’으로 3격(dative)이 된다.
- 2) A를 B로 생산하다/만들다...  
: B는 재료, A는 생산품이다.
- 3) A를 B로 부르다/임명하다...  
: A는 흔히 ‘사람’으로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의미한다.
- 4) A를 B로 치다/먹이다/가르치다/채우다...  
: B는 도구나 방법을 의미한다.

이중 목적어를 지닌 구문 가운데 두 번째 목적어가 ‘재료’를 의미하는 경우 테크레센도 구조를 지니기 쉽다. 왜냐하면 두 번째 목적어가 단순하게 하나의 단어로 끝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예문 2>는 시작점(오른쪽에서 시작한다)에서 크레센도 구조를 지니지만, 맨 뒤의 ‘재료’를 나타내는 문장 구성소가 단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의 속도’에 최적화된 문장이 아니게 되었다. 만일 ‘청동’(מתכת)이 술어(טעו) 바로 다음에 위치했다라면 이해의 속도가 최고점에 다다랐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에서 다룰 두 문형을 제외하면, 이들의 형식적 통일성은 매우 낮아서 언제나 이런 구조를 지니는 ‘문형’으로 부를 수는

<예문 2>

1열왕 7,15a	מְכֻסֵּת	אֶת־שְׁנֵי הָעַמּוּדִים	יָצַר	1
크기	1	4	1	1

“그가 **청동**으로 기둥 둘을 만들었다.”

13)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항목이지만, 문법서들 사이에 용어도 일치하지 않고, 이중 목적어 구문의 분류법도 일치하지 않는다. 위의 네 가지 분류는 필자가 가장 간단하게 분류해 본 것이다.

없다.

양적 구조 분석 방법에 따르면, 다음의 두 경우만 형식이나 내용에  
서 특별히 일치하여 ‘문형’으로 부를 수 있다. 우선 두 문형의 형식적  
일치점은 다음과 같다. 1) 두 번째 목적어가 문장의 끝자리를 차지하며  
문장을 끝낸다. 2) 두 번째 목적어가 연계구나 형용사구 등으로 확장되  
지 않는다. 3) 두 번째 목적어 뒤에 부정사절이나 관계절 등 종속문으로  
주문장이 확장되지 않는다. 4) 문장 형식의 변형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한편 두 문형 모두 문장의 맨 끝자리에서 유표적 양적 구조를 발생시키  
기에 ‘부분적 데크레센도 생산자’(partial Decrescendo generator)라고 이  
름 붙였다.

#### 4. 이름 짓기 문형(naming formula)

히브리어 성경에서 어떤 고유 명사가 처음 등장할 때, 이 ‘이름 짓기  
문형’이 사용될 수 있다. 이 고유 명사가 일단 본문에 등장하면, 뒤따르  
는 본문에서 대명사가 등장하여, 앞서 나온 이 고유 명사를 가리키는  
(anaphoric)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 문형은 지명보다는 인명에서  
훨씬 많이 쓰인다.

<예문 3>은 ‘하와’라는 인명(고유 명사)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문장이다. 위에서 분류한 이중 목적어 구문 가운데 3)에 해당  
하는 문장이다. 두 번째 목적어인 고유 명사의 위치 때문에 이 문장은  
‘이해의 속도’에 최적화되지 않은 데크레센도 구조를 지닌다. 이 문장  
차원에서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선 맨 마지막 단어까지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곧, 이 문장이 제공하는 결정적 정보인 마지막 단어  
(고유 명사)까지 들어야만 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문장은 창세기에서 열왕기 하권까지 모두 60회 등장하는데(모  
세오경에 49번, 여호-2열왕에 11번), 특히 창세기에만 39번 나온다.<sup>14)</sup>

<예문 3>

창세 3,20a	חָוָה	אִשְׁתּוֹ עֵשָׂו	דָּגוּלָּהּ	אֲרָבָה	1
	2.Sy2	2.Sy1	1.Sy	P	
	목적어2	목적어1	주어	술어	
크기	1	3	2	1	1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예문 4>

- 창세 5,29a נֶחֱמִי אֶת־שְׁמוֹ נֹחַ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 창세 11,9a עַל־כֵּן קָרָא שְׁמָהּ בָּבֶל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 창세 25,26c עֵקֶב שְׁמוֹ אֶת־קָרָא  
그의 이름을 아곱이라 하였다.

<예문 4>에서는 세 가지 예문만 실겠다. 모두 이 고유 명사 때문에 테크레센도 구조가 발생한다.

이 이름 짓기 문형의 구조는 <예문 5>와 같다. 술어는 ‘부르다’를 뜻하는 ‘카라’(קָרָא)가 언제나 기본형(G 또는 칼형)으로 사용되는데 3인칭 남성 또는 여성형이 많다. 첫 번째 목적어(2.Sy1)는 ‘이름’[‘셈’(שֵׁם)]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확장된다(예: ‘그녀의 이름’, ‘그의 이름’, ‘그곳의 이름’ 등). 때로는 ‘셈’(שֵׁם) 앞에 ‘에트’(עַתָּה)가 사용될 때도 있다. 그리고 맨 끝에 두 번째 목적어(2.Sy2)가 나와 문장을 맺는데, 문장 끝에서 부가어나 종속문 등으로 문장이 확장되지 않는다<예문 5>.

<예문 5>

이름 짓기 문형	고유 명사	x+שֵׁם+x	קָרָא	x/1
	2.Sy2	2.Sy1	P	
	목적어 2	목적어 2	술어	

14) Joo, “Decrescendo in Crescendo—the Quantitative-Structural Analysis of the Verbal Clause in the Biblical Hebrew,” 119-128에 모든 문장이 히브리어 원문과 함께 실려 있다.

고유 명사 ‘만나’도 맨 처음엔 이 문형에 실려 성경에 등장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예문 6>에서 보듯, ‘만나’라는 단어가 발설되는 순간 이 문장의 구조가 인지되고, 결정적 정보이자 마지막 문장 구성소인 ‘만나’가 발설되면서 즉시 문장이 끝난다.

<예문 6>

탈출 16,31a	קָן 2.Sy2 목적어 2	אֶת־שֵׁמוֹ 2.Sy1 목적어 1	בֵּית־יִשְׂרָאֵל 1.Sy 주어	יָקְרָא p 술어	1
크기	1	3	2	1	1

“이스라엘 집안은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다.”

이 이름 짓기 문형에는 약간의 변형이 있다. 하지만 이 변형들도 양적 구조의 특징은 그대로 지킨다. 이런 문장은 16회 등장한다. 동사를 ‘심’(עָשׂ)으로 바꾼 곳이 한 번(이름을 ‘놓다’, 곧 ‘짓다’: 판관 8,31b), ‘사باط’(סָבַב)으로 사용한 적이 2번(이름을 ‘바꾸다’: 2열왕 23,34b; 24,17b) 있고, 다음처럼 첫째 목적어(2.Sy1)로 사용된 ‘셈’(עָשׂ)이 생략된 문장이 13번 나온다<예문 7>.<sup>15)</sup>

<예문 7>

신명 2,11b	אֲמִים	לָקְחָ	יָקְרָא	הַמְּאִיבִים	1
크기	1	2	1	2	1

“모압인들은 그들을 **엠인**이라 하였다.”

이 변형된 이름 짓기 문형은 데크레센도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흥미롭게도 창세 1장 5절의 ‘낮’과 ‘밤’, 8절의 ‘하늘’, 10절의 ‘땅’과 ‘바다’가 성경에 맨 처음 나올 때도 이 변형된 문형이 사용되

15) 이밖에 맨 처음 등장하는 고유 명사가 복합명, 곧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6번 있다. Joo, “Decrescendo in Crescendo—the Quantitative-Structural Analysis of the Verbal Clause in the Biblical Hebrew,” 125-126.

었다. 이 단어들 모두 마치 이스마엘이나 야곱 같은 고유 명사처럼 등장한 것이다.

이로써 창세-2열왕 산문의 동사문에 이름 짓기 문형과 그 변형은 모두 76회 등장한다. 그런데 이 문형의 예외도 모두 10회 나온다. 이 예외의 공통점은 모두 신명기계 문헌에서 지명을 소개할 때다. 두 번째 목적어인 고유 명사 뒤에 붙는 부가어들은 그 이름이 생기게 된 유래나 시기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신명기계 문장의 문체적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예문 8>.<sup>16)</sup>

<예문 8>

여호 5,9c	עד היה C-temp 시간 부사어	גלגל 2. Sy2 목적	מקנה שם היה	אקא?	1
크기	5	1	5	1	1
판관 18,29a.aR	הן שם שם מקנה היה C-caus 원인 부가어	הן 2.Sy2 목적2	שם היה	אקא?	1
크기	9	1	3	1	1
크기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b>이스라엘에게서</b> 태어난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지었다.”				

16) 이런 신명기계 문체의 이런 특징은 양적 구조 분석을 통해 최초로 밝혀낸 것이다. 이로써 신명기계 문체의 형식적 특징 하나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신명기 문헌은 지명을 소개할 때, 유래나 기원을 설명하면서 평범한 크레센도 문장을 만든다. 이런 부가어를 통해 유래나 시기를 설명하는 문장 구성소가 없다면, 이런 신명기계 문헌의 예외적 사례들도 데크레센도 구조를 지녔을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해서 ‘본래의 문장’ 또는 ‘더 오래된 문장’을 통시적으로 조심스레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히브리어 성경 본문은 단조롭지(monotone) 않다. 크레센도 구조와 다양한 데크레센도 구조의 문장이 조화롭게 섞여 있어, 문장을 순서대로 읽으면 문장의 인지적 효율성의 다양한 변형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텍스트 상에 존재하는 양적 구조의 변이는 텍스트의 인지적 변이를 발생시킨다.

다시 말해 텍스트 상에는 인지적 변화의 물결과 무늬가 존재한다. 평범한 문장만으로 꼭 채워진 본문보다는 이런 인지적 효율성의 변이를 다양히 일으키는 본문이 낭독과 암송을 위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이름 짓기 문형이 사용된 문장은 그런 변이를 일으키는 중요한 장치의 역할을 한다. 중요한 인물이나 장소가 본문에 처음 등장할 때, 문장 맨 끝까지 주의를 집중해야 그 문장의 가장 중요한 정보인 그 ‘이름’을 들을 수 있다. 히브리어 성경의 주요 인물과 장소의 이름은 이런 일탈적 구조를 통해서 무대에 등장하여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듯하다.

## 5. 혼인 문형(marriage formula)

양적 구조 관찰로 발견한 또 하나의 문형은 ‘혼인 문형’이다. 이 혼인 문형이 사용된 문장의 양적 구조의 일치성은 매우 높아서 예외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이다. <예문 9>에서 보듯, 이 혼인 문형의 동사는 ‘나탄’(נתן, 주다.) 또는 ‘라카’(לקח, 얻다.)가 사용되는데, 모두 기본형으로 쓰인다. 언제나 문장의 맨 끝 자리는 ‘리이썸’(לרעי, “아내로” 또는 복수형으로 לרעיה)가 차지한다. 이 혼인 문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A를 아내로(곧 B로) 주다/얻다”의 뜻이다.

여기서 ‘아내로’를 뜻하는 두 번째 목적어의 형태를 보면 전치사 ‘르’(ל)에 목적어 ‘이썸’(רעי)가 결합한 것이다. 이런 문장 구성소를 리히터는 전치사와 결합했다는 형식적 특징을 살려 ‘전치사 목적어’(4.Sy)로

분류했다.<sup>17)</sup> 이 혼인 문형이 사용된 문장에서 4.Sy는 연계 구문이나 관계 대명사 등으로 확장되지 않고, 짧게 문장을 맺는다. 또한 종속문으로 확장되지도 않는다<예문 9>.

<예문 9>

혼인 문형	הַשָּׂאֵל	x...x	קָקָל 또는 נָתַן	x
	4.Sy	Sy/C	P	
	전치 목적	...	술어	

이런 문장은 다음처럼 언제나 ‘르이쌍’(הַשָּׂאֵל, 아내로)로 맺는다. 그 뒤에 어떤 관계절, 부정사절, 부가어도 붙지 않고, 일탈적인 양적 구조로 끝맺기에 이해 속도의 최적화되는 거리가 멀다.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권에서 이 문형이 사용된 문장은 단수형인 ‘르이쌍’(הַשָּׂאֵל)로 맺는 게 32번, 복수형인 ‘르나심’(לַנְּשִׂימֹ)으로 끝나는 곳이 2번이다(모두 34회, <예문 10>).<sup>18)</sup>

<예문 11>은 문장을 끝맺는 문장 구성소에 ‘이쌍’(הַשָּׂא)가 사용되고, ‘라카’(קָקָל)동사도 사용되었지만 혼인 문형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또한 문장의 양적 구조도 흔한 크레센도 구조이다. 곧 이 혼인 문형이 사용되지 않은 곳은 평범한 구조가 발생함을 보여주는 예다.

이 혼인 문형에는 흥미로운 변형이 존재한다. 술어에 ‘하야’(הָיָה) 동사가 사용되어 ‘(~의 아내가) 되다’는 문장도 모두 18회(단수형인 הַשָּׂאֵל로 13번, 복수형인 לַנְּשִׂימֹ으로 5번) 나오는데, 역시 언제나 일탈적인 양적 구조를 발생시킨다. 술어의 변형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바나’(בָּנָה, 짓다.)가 딱 한 번 사용되었다는 점인데, 역시 데크레센도 구조로 맺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로써 언제나 데크레센도 구조로 문장을 맺는

17) 이렇게 언어적 ‘형식’에 우선을 두는 것이 리히터의 대표적 특징이다. 이 때문인지 리히터의 방법론은 양식비평가들에게 호평을 받기도 한다.

18) Joo, “Decrescendo in Crescendo—the Quantitative-Structural Analysis of the Verbal Clause in the Biblical Hebrew,” 128-130에 모든 문장과 분석이 실려 있다.

<예문 10>

창세 30,9d 크기	לְאִשָּׁה 2	לְיַעֲקֹב 2	אֶתָּה 1	תָּתֵן 1	1 1	
“그녀는 그녀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탈출 6,20a 크기	לְאִשָּׁה 2	לוֹ 2	אֶת־יוֹכָבֵד הָדָתוֹ 4	עַמְרָם 1	יָקָח 1	1 1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예문 11>

창세 20,3c.cR 크기		עַל־הָאִשָּׁה אֲשֶׁר־לְקַחְתָּ 5	מִתּ 1	הַגָּד 1
“네가 데려온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예문 12>

1열왕 4,11b 크기	לְאִשָּׁה 2	לוֹ 2	הַיְתָה 1	טַפַּת בַּת־שְׁלֹמֹה 3	
“솔로몬의 딸 타팃은 그에게 아내가 되었다.”					
신명 22,19d 크기	לְאִשָּׁה 2	תְּהִיָּה 1	לוֹ 2	וְ 1	
“그녀는 그에게 아내가 된다.”					
창세 2,22a.a.R.a	לְאִשָּׁה 4.Sy 전치 목적 2	אֶת־הַצֵּלָע אֲשֶׁר־לְקַח מִן־הָאָדָם מִן־הָאָדָם 2.Sy 직접 목적어 8	וְהָיָה אֱלֹהִים 1.Sy 주어 2	וַיִּבֶן P 술어 1	1 1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셨다.”					

53개의 문장을 찾을 수 있다. 이 혼인 문형은 문체나 원천에 따른 예외도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이렇게 일탈적 문장을 발생시킨다<예문 12>.

문법서 가운데 BHRG과 GKC는 이렇게 사용되는 ‘라메드’(ב)를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기능을 지닌 전치사로 정리했다. 곧, ‘아내’, ‘임금’, ‘예언자’ 등의 새로운 역할이 수여될 때 사용되는 전치사라는 것이다.<sup>19)</sup> 대부분의 문법서가 이렇게 다룬다. 한편 윌트키의 문법서는 이처럼 정리하면서도, ‘라메드’(ב)에 대해 더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sup>20)</sup>

이 전치사에 대해 상세하고도 정확한 연구를 수행한 학자는 옌니(Jenni)다. 그는 이런 ‘라메드’(ב)를 ‘(사회적 또는 종교적) 지위 변화의 라메드’로 분류하였다.<sup>21)</sup> 그는 문장을 맺는, 곧 문장의 끝자리에 언제나 고정된 ‘크이썬’(כִּי)의 규칙성을 매우 흥미 있는 현상이라 보고하였다. 그래서 그는 ‘크이썬’(כִּי)가 사용된 문장을 “지위 변화의 ‘라메드’(ב)가 사용된 구문 가운데에서 따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옌니는 특히 ‘하야’(הַי)동사가 사용된 문장을 분석하던 중(<예문 12>의 1열왕 4,11b와 신명 22,19d), 만일 ‘라메드’(ב)가 없었다면 이런 문장은 ‘~의 아내가 되다.’가 아니라, ‘~여성(woman)이 되었다/자라났다.’의 뜻으로 될 수도 있는, 곧 ‘혼인’이 아닌 ‘생물학적 성장 과정’을 의미하는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라메드’(ב)로 말미암아 ‘이썬’(כִּי)를 일반적인 ‘여성’이라고 해석하지 못하고 ‘아내’로만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지위 변화의 라메드’는 ‘임금’,

19) H. F. W. Gesenius, *Gesenius' Hebrew Grammar*, E. Kautzsch and Cowley, eds., 2nd English ed. (Oxford: Oxford Univ. Press, 1910), 381; Van der Merwe, Naudé, and Kroeze,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rep. 2006), 285.

20) Waltke and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209.

21) 옌니가 사용한 용어인 “Lamed revaluationis”를 직역하면 “(관계적) 재평가의 라메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용어를 ‘특정인의 (평판/지위 등을) 재평가’(Revaluation als zugehörige Person)라는 의미로 사용하므로, ‘(사회적) 지위의 변화’라고 옮기는 것이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Jenni, *Die hebräische Präposition III: Präposition Lamed* (Stuttgart/Berlin/Köln: Kohlhammer, 2000), 41.

‘메시아’ 등 통상적, 사회적, 법적 지위의 변화를 다루는 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 문장에서 ‘아내가 되다.’는 의미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이 순전히 사적(私的) 행사가 아니라, 공적 지위를 인정받는 절차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sup>22)</sup>

엔니의 연구와는 독립적인 방법론을 사용하는 필자의 연구는 ‘르이싸’(רִאשֹׁנָה)의 용법에 대해 문장 차원에서 새로운 형식적 공통점을 추가로 보고할 수 있게 되었다. 1) 이 전치사구 ‘르이싸’(רִאשֹׁנָה, 아내로)는 술어가 ‘하야’(הָיָה, ~이다, 되다.)가 아닌 다른 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도 맨 끝자리를 차지한다. 2) 또한 매우 자주 데크레센도 문장을 발생시킨다. 3) 이런 문장 차원의 형식적 공통성은 매우 강해서 창세2열왕의 동사문에서는 예외를 찾아볼 수 없다. 곧 원천과 문체에 구애받지 않는 매우 고정된 문형이다. 4) 이 문형의 형식적 고정성은 매우 크다. ‘지위 변화의 라메드’가 사용된 문장 가운데 가장 크다.

## 6. 나가며

히브리어학에서 지금까지 문장 차원의 연구는 대개 문장 구성소의 순서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어순 연구’(word order studies)였다. 필자는 이 어순 연구가 문장 구성소의 ‘질적’ 순서만을 고찰하고, ‘양적 구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비판하고 새롭게 양적 구조 분석을 시도하게 되었다. 일반 언어학의 ‘양적 성분의 증진 법칙(PIC)’과 리히터의 정교한 히브리어 분석틀에 기반해서 양적 구조를 정의했다. 음악 기호인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를 차용한 이유는 대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마련인 언어학적 논의를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22) Jenni, “Subjektive und objektive Klassifikation im althebräischen Nominalsatz,” *TbZ* 55 (1999), 110.

양적 구조 분석에 기초해서 히브리어 동사문을 관찰하다가 필자는 형식적 고정성이 매우 높은 두 가지 문형을 발견하여 보고하게 되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이 분석 방법론이 텍스트 차원에 적용되면 어떤 결과를 낼지, 또 기존의 어순 연구와의 관련성은 어떨지 등 적용할 분야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주요어>**

양적 구조, 어순 연구, 구문론, 이름 짓기 문형, 혼인 문형, 볼프강 리히터

**<Key Words>**

Quantitative Structure, Word Order Study, Syntax, Naming Formula, Marriage Formula, Wolfgang Richter

\* 접수일 2010년 2월 6일, 수정일 2010년 3월 17일, 게재 확정일 2010년 3월 30일

### 참고문헌

- 방석중, “히브리어 구문론 연구,” 「신학과 세계」 26 (1993), 44
- 방석중, 『히브리어 문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스탬베르거, 『미드라쉬 입문 - 라삌들은 성경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개론, 선택 본문과 해석』, 이수민 역, 서울: 바오로 딸, 2008.
- 이기락, 『성서 히브리어 문장론』, 서울: 가톨릭대 출판부, 1999.
- 주원준, “히브리어 동사문의 양적 구조 분석 방법론 개관,” 「신학과 철학」 13 (2010).
- Dik, *The Theory of Functional Grammar, Part I: The Structure of the Clause*, Functional Grammar Series 9, Berlin/NewYork: Mouton de Gruyter, 1997, 345.
- Disse, *Informationsstruktur im biblischen Hebräisch: Sprachwissenschaftliche Grundlagen und exegetische Konsequenzen einer Korpusuntersuchung zu den Büchern Deuteronomium, Richter und 2 Könige*, ATS 56, St. Ottilien: EOS, 1998.
- Gesenius, H. F., *Gesenius' Hebrew Grammar*, E. Kautzsch and A. E. Cowley, eds., 28th. ed., Oxford: Oxford Univ. Press, 1909; Cowley, ed., *Gesenius' Hebrew Grammar*, 2nd English ed., Oxford: Oxford Univ. Press, 1910.
- Hawkins, “A Parsing Theory of Word Order Universals,” *LI* 21/2 (1990), 223-261.
- Jenni, “Subjektive und objektive Klassifikation im althebräischen Nominalsatz,” *TbZ* 55 (1999), 103-111.
- Jenni, *Die hebräische Präposition III, Präposition Lamed*, Stuttgart/Berlin/Köln: Kohlhammer, 2000.
- Joo, *Decrescendo in Crescendo - the Quantitative-Structural Analysis of the Verbal Clause in the Biblical Hebrew*, ATS 87, St. Ottilien: EOS, 2009.
- Rechenmacher and Van der Merwe, “The Contribution of Wolfgang Richter to current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biblical Hebrew,” *JSS* L/1 (2005), 59-82.
- Van der Merwe, “A Short Survey of Major Contributions to the Grammatical

Description of Old Hebrew since 1800 AD,” *JNSL* 13 (1987), 161-190.

Van der Merwe, Naudé, and Kroeze,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reprint in 2006.

Waltke and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초록>

## 이름 짓기 문형과 혼인 문형

-성경 히브리어의 양적 구조 분석으로 발견한 고정된 형식들-

주원준

(한남성서연구소 수석 연구원)

본 연구는 한국에 아직 낯선 리히터(Richter)의 언어 분석 방법론을 소개하고, 성경 히브리어 문장의 양적 구조를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적 틀을 시도한다. 인간의 언어는 청자의 효율적인 인지를 위해 “문장 성분의 증진 법칙(PIC)”에 따라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히브리 성경도 이렇게 청자가 쉽게 이해되는 구조인지, 이 심리 언어학적 해석에 따라 그 본문을 재검토할 수 있다. 만일 청자의 이해에 불리하게 구성된 곳이 있다면 왜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문장 성분의 증진 법칙이 지켜지는 문장, 곧 문장을 시작하는 문장 구성소가 작고 문장을 맺는 문장 구성소가 큰 문장을 크레센도라 부른다. 이런 문장은 무표적 문장이고, 히브리어 성경의 산문에서 통계학적으로 압도적 다수를 이룬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제2열왕기까지 산문의 모든 동사문의 양적 구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본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볼 수 있다. 첫째는 새 고유 명사가 등장할 때다. 고유 명사는 매우 자주 “카리’(קרי)—셈’(צמ)-고유 명사”의 문형으로 등장한다. 이 글에서 ‘이름 짓기 문형’으로 부르는 이런 문장들은 평범한 크레센도 구조를 지니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유 명사가 문장을 마치는 곳에서 특이한 데크레센도 구조를 발생시킨다. 이런 문장을 듣는 청자는 문장 맨 끝에서 가장 결정적 정보(=고유 명사)까지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이따금 등장하는 이런 데크레센도 문장은 크레센도가 지배하는 본문에서 인지적 효율성

의 변형을 다채롭게 발생시킨다.

둘째는 ‘혼인 문형’의 문장으로 남녀의 혼인은 ‘אֵשֶׁת-הָאָדָם/הָאִשָּׁה-הַזָּכָר’(또는 אִשָּׁה)’의 문형으로 보고된다. 이 문장 또한 데크레센도 구조로 맞는다. 전통 문법에서 왕이나 예언자 등을 임명할 때, 곧 사회적 지위 변화를 표현하는 문장의 일종으로 연구되던 이런 문장에 대해, 양적 구조 분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식적 특징을 정리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사회적 지위 변화를 보고하는 문장 가운데, 형식적으로 가장 고정된 특징을 보인다.

<Abstract>

### **Naming Formula and Marriage Formula:**

fixed forms founded by the quantitative-structural analysis of  
BH

Ph. D., Wonjun Joo  
(Hannim Biblical Institute)

This study, introducing Richter’s methodology of the linguistic analysis of BH, tries the new methodological framework of the Quantitative Structure of the BH clause. The psycholinguistic interpretation that the human languages have the strong tendency to be structured according to the PIC(Principle of Increasing Parts) for the more efficient cognition of the hearer, inspires the re-examination of the BH texts if it is also structured for the advantage of the hearer or not; and if not, why and what is going on. The PIC-keeping clause, that is, the smaller starting constituent with the huge ending one, is called Crescendo, which is unmarked and statistically absolute majority in HB.

In the course of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quantitative structure of all verbal clause of prose in Gen-2Kings, however, a very interesting phenomenon on the textual surface is found in two referencies; Firstly, with the very first appearance of the new proper name, it is frequently introduced in form “אָרְאָם – קָרָא-the proper name”, so-called “naming formula.” It is interesting that the usual Crescendo is not taking place, so that the proper name finishes the clause generating the unusual Decrescendo-ending. It serves to hold the attention of the hearer to the last and decisive word producing the cognitive deviating wave in the Crescendo prevailing text.

Secondly, when the marriage is reported, it is frequently carried in “וְהָיָה לְקַח/נָתַן – לְאִשָּׁה(or לְנָשִׁים in plural)”, so called “marriage formula”, also generating the Decrescendo-finishing. From the quantitative-structural perspective, an additional formal criteria is added to the traditional studies of such a sentence reporting the change of social status, i.e. king or prophet: this is the more fixed form than any other clause of the change of the social status.